Han'gukhag-ŭi sŏn'guja Maurice Courant" (□□□□ □□□ = Un précurseur des études coréennes, Maurice Courant) 1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Han'gukhag-ŭi sŏn'guja Maurice Courant" (□□□□ □□□ = Un précurseur des études coréennes, Maurice Courant) 1. Tongbang hakchi □□□□, 1986, N° 51, pp. 153-194. ⟨halshs-00443574⟩

HAL Id: halshs-00443574

https://shs.hal.science/halshs-00443574

Submitted on 30 Dec 200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上)*

D. 부 셰*

I.

동양학자들이 선구자로 받드는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은 20세기 초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1894년부터 1901년에 걸쳐 출판된 꾸랑의 불후의 저서 「朝鮮書誌」[1]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조차도 모리스 꾸랑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인들이 그에 관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지난 세기 말 극히 짧은 기간 체류한 뒤 그같은 믿을만한 참고서를 남긴 젊은 외교관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그 후엔 곧 조선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인가? 그리고 왜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1] 原名은 *Bibliographie corèenne*, Paris, 1894~1901, 4 vols.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영인 출판되었다. 『조선서지』에 소개된 한국서적의 수는 3,821권에 달한다.

답하고자 관련분야 간행물 등을 섭렵해 보지만, 그에 대한 추도문 같은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그가 1935년 죽었을 때에도 거의 세상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중국•일본 학자이기도 했던 꾸랑이 그 당시에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불란서의 한국학이 꾸랑의 존재를 망각함은 그 학문 자체의 역사를 부정함이며 선구자의 노력에 대한 배은망덕이라 할 것이다. 이미 늦은 바 없지 않지만 이 같은 공백은 언젠가는 메꾸어져야 하며 꾸랑이 받아 마땅한 경이를 표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꾸랑이 출판한 주요 중국•일본 연구와 그가 리용에서 35년 간 담당했던 강의도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본인이 참고로 한 자료는 佛中•佛日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몇 가지 외교문제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 1919년 꾸랑의 동경 파견이 그 한 예이며, 특히 (Institut franco-chinois de Lyon)의 창립과 운영에 그가 담당한 역할은 중국 사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문제이다.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은 1865년 10월 12일 파리의 프랑크랭(Fran-klin)街 6번지에서 샤를르 이지도르 꾸랑(Charles Isidore Courant, 1826~1888)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부친 샤를르 역시 파리 출생이나 노르망디인의 후손이었다. 몇십년 거슬러 올라가면 불란서 혁명 당시 리지외(Lisieux)의 나사 상인이던 그의 조상을 추적할 수 있다. 재운이 없었던 부친 샤를르는 모리스 출생시 국방성의 서기직을 맡고 있었다. 빠시(Passy)區 공증인의 딸 마리 꼬스나르(Marie Cosnard,

1835~1907)와 혼인, 모리스 이외에도 여러 자식을 두었으나 살아남아 장성한 이는 앙리(Henri, 1871~1925)뿐이다.

장남 모리스의 유아기•사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1883년 대학 자격 시험에 통과, 같은 해 파리대학 법과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법학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2년 후 1885년 동양어학교에 등록, 중국어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어 강좌를 맡고 있던 폴란드인 알렉상드르 클래쇼브스키(Alexandre Kleczkowski) 백작(1818~1886)은 건강 악화로 곧 퇴임하여 가브리엘 드베리아(Gabriel Devèria, 1844~1899)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젊은 꾸랑에게 처음으로 중국어를 가르친 이는 드베리아 교수이다. 그러나 제2학년, 3학년에 강의를 맡은 것은 드베리아 교수가 아니라 모리스 쟘땔(Maurice Jametel, 1856~1889)이라는 강사였다. 드베리아 교수는 1889년에야 복직하게 된다. 일본어의 경우, 1868년 일본어 강좌 개설 후 줄곧 강의를 맡고 있던 레옹 드 로니(Lèon de Rosny, 1837~1914)의 가르침을 받았다.

꾸랑의 동양어학교 시절 학우로는 이후 서구세계 최고의 중국학 권위자로 불리우게 될 에두아르 샤반느(Edouard Chavannes, 1865~1918)를 꼽을 수 있다. 샤반느는 꾸랑보다 1년 늦게 입학하였으나 제2학년을 월반, 3학년부터 동급생이 되었다. 이 둘의 친분은 지속된 것 같다. 1897년과 1898년 병든 샤반느는 자신을 대신하여 꼴레쥬 드 프랑스 일을 부탁한 것은 바로 꾸랑에게였다.

장학생으로 제2•3학년을 마친 꾸랑은 1888년 중국어와 일본어과를 졸업 하였다. 이 해는 그의 부친이 작고한 해이기도 하다. 두 해 전 1886년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동양어학교 졸업생의 주요 진출로는 외무성 통역관직이었다. 뽈 드미에빌(Paul Demiéville)은 통역관에 대해, “그들은 당시 동양 諸國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클래쇼브스키를 비롯 꾸랑을 가르친 교수들 드베리아, 쟘땔 모두 통역관이었고, 그 역시 같은 길을 밟았다. 졸업한 해 9월 6일부터 그는 북경 주재 불란서 공사관에서 통역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1개월에 걸친 Courant의 첫 중국 체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아르노 비시에르(Arnold Vissière)를 대신하여 수석통역관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가를 이용하여 써낸 「北京의 궁정(La Cour de Péking)」연구로 1891년 본국 외무성으로부터 통역관상을 받았다. 꾸랑은 이 연구를 발판으로 더욱 폭넓은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나, 그의 부재시 저자의 허가도 수정도 받지 않은 채 출판이 되어 차후연구를 포기하였다.[2]

1890년 5월 23일 모리스 꾸랑은 北京에서 서울로 전속, 프랑스와 게랭(Frqnçois

[2] 꾸랑이 꼴랭 드 쁠랑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꼴랭이 꾸랑에게서 받은 私信들은 외무성 문서보관소에 꼴랭의 개인 문서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고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되었다.

Guérin) 후임으로 書記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3] 그 당시 조선 주재 불란서 외교관은 단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꾸랑이 보좌하게 된 상관 빅또르 꼴랭 드 쁠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는 1886년에 조선과 불란서 사이에 체결된 通商友好條約 비준 문서를 교환할 임무를 띠고 1887년에 파견된 인물이다. 이 임무를 마친 후 그는 서울 주재 불란서 公使로 임명되었다.[4] 꼴랭 드 쁠랑시도 12년 연하인 꾸랑과 마찬가지로 법학 학사, 동양어학교 중국어과 졸업, 駐北京 통역관의 경로를 겪었다. 꾸랑이 서울에 온 직후 꼴랭 드 쁠랑시는 1890년 7월 12일 北京으로, 곧 이어 8월 16일 東京으로 전속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꼴랭 드 쁠랑시가 그의 새 서기관과 서울에서 함께 일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발령은 실행되지 않았고 동경 발령 역시 1891년 6월 15일 그를 대신할 에밀 로셰(Émile Rocher)[5]가 서울에 도착한 후에야[6] 그 사실을 조선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러므로 꾸랑이 꼴랭 드 쁠랑시와 함께 보낸 시간은 1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

[3] 게랭의 출국과 꾸랑의 발령에 대해서는 『舊韓國外交文書』, 서울, 1965~1973, 22卷 중 卷19, 265, 266, 270번 참조. 이 문서에의 서양인들의 이름은 한자로 기록되고 있다. 꾸랑의 漢名은 古恒, 게랭은 業國麟.

[4] 꼴랭 드 쁠랑시의 생애에 대해서는 꼬르디에(H. Cordier)가 쓴 추도문 참조 : *T'oung Pao*, XXI(1992), p.445.

[5] 에밀 로셰의 漢名은 彌樂石.

[6] 『舊韓國外交文書』卷 19, 356번. 꼴랭드 쁠랑시의 漢名은 葛林德.

꼴랭 드 쁠랑시는 존경을 받는 외교관이었다. 그는 1895년 총영사 겸 주재공사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와 1906년까지 붕괴해가는 조선왕실이 경청하는 충고자 구실을 하였다. 어느 美외교관은 그에 관하여 "진지하고 예의바르며 사려깊은 인물, 親露派이면서도 음모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7] 오늘날 동양학자들은 그의 외교활동보다는 그가 극동 체류 중 수집한 예술품과 고서적에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확고한 감식력과 폭넓은 교양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수집물은 단연 1377년 주조활자로 인쇄된 「自雲和尙抄錄佛祖指心體要節」 제2권이다.[8] 이는 현존하는 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며 구텐베르그(Gutenberg) 성서보다 71년 앞선 것이다. 꼴랭 드 쁠랑시 수집품과 藏書의 대부분이 1911년 3월 27일과 30일에 파리에 드루오 경매청 (Hôtel Drouot)에서 실시된 경매 후 뿔뿔이 흩어졌다.[9] 그러나 1887~1891, 1895~1899년에

---

[7] William F. Sands, *Undiplomatic memories*, New York, 1930, Repr., Royal Asiatic Society reprint series, Seoul, 1975, 238 p., p.51.

[8] 『直指心經』이라는 부적절한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꾸랑의 『조선서지 보유권』(*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901, 1 vol, 122 p, p.IX, pp.70~71, no 3738)에 첨가되었고, C.P.를 명시하여 꼴랭드 쁠랑시 장서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1900년 파리 박람회 당시 다른 저서들과 함께 한국관에 전시된 바 있다(Henri Vivarez, "Vieux Papiers de Corée", dans le *Bulletin de la Sociétéarchéologique, historique et artistique*, I-3, Paris, octobre 1900, pp.76~80).

[9] *Collection d'un amateur. Objets d'art de la Corée, de la Chine et du Japan*, Me André Desvouges, Commissaire-priseur, et Ernest Leroux, expert, Paris, E. Leroux, 1911. 『 自雲和尙抄錄佛祖指心體要節 』은 이 목록의 711번에 자리한다.

그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 서적은 경매 이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거의 모두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늘날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한국 고전 장서를 이루고 있다.

꼴랭이 어떤 방법으로 그같은 귀중한 서적들을 취득하였는지 궁금한 일이다. 1888년과 1889년, 즉 꼴랭이 그 후 1891년에 기증하게 될 서적들이 구입된 바로 그 시기에 조선을 답사한 불란서 지리학자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의 아래와 같은 기록으로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10]

"서울에서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꼴랭 드 쁠랑시씨는 어느 불란서 여행자가 매일 아침 불란서 공사관에 자리잡고서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의 견본을 구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떼를 지어 오면 조선민속학적 견지에 따라 물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외국에서

파리市 문서 보관소에서 열람한 경매기록부(Archives de Paris, D. 60E^3 83)에 의하면 이 도서는 브배르(Vever)이라는 이에게 180 프랑에 팔렸다고 한다. 파리의 보석상인 브배르(1854~1943)는 일본 판화 수집가로 유명한 인물이다(브배르에 대해서는 Raymond Koechlin, *Souvenir d'un vieil amateur d'art de l'ExtrèmeOrient, Chalon-sur-Saône, 1930, 113p.*; *Jack Hillier, Japanese Prints and Drawings from the Vever Collection*, Sotheby Parke Bernet, London, 1976, 3 vols., vol. 1, pp.XI-XII). 이어 1950년경 그의 상속인에 의해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10] 탐험가 샤를르 바라는 불란서 문교성에 의해 민속연구의 임무를 띄고 파견되었다. "Voyage en Corée ; 1888~1889", *dans Le Tour du monde, Nouveau Journal des Voyages*, livraison 1635 (7mai 1892), Paris, pp.289~368, p.296. 샤를르 바라가 조선에서 수집한 古書와 예술품은 오늘날 파리의 귀메(Guimet)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꼬르디에의 추도문 참조 : *T'oung Pao*, 1893, p.311.

온 상품은 가차없이 제외된다. 다행히 꼴랭 드 쁠랑시씨는 그가 매일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비서들을 내 밑에 두어 일을 돕게 해 주었다. 이들이 나로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가격 흥정도 맡아한다. 상인들은 때로는 엄청난 가격을 부르거나 이쪽의 제의를 거절하곤 하지만 흥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날이면 다시 와 전날 거절했던 조건을 수락하니까.

오후에 우리는 불어를 하는 비서들과 함께 서울을 누비며 민속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눈에 띄는대로 사들인다."

옛 서울의 수많은 商店들! 그 중 서점들은 꾸랑도 마찬가지로 그의 「朝鮮書誌」의 자료를 찾아 순회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가 서문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서울의 상점에 대한 구절은 類例없는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바라, 이어서 꾸랑의 발길을 여기로 이끌어 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문에 열거된 참고문헌을 보면 그가 탐독한 자료의 우수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도 못했던 그가[11] 더욱이 공공도서관이 존재치 않는 나라에서 그토록 짧은 체류 중 最善의 자료에 곧바로 접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그의 자질이 뛰어났다고 해도 주변의 우수한 조언 없이는 전문가들의 경탄의 대상인

[11] 꾸랑이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이 같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전히 조선의 공용문자이던 한문에 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字音의 한국식 발음에 따라 옥편을 찾아 보기 위해서는 한글을 익혀야 했다. 그 후 한글로 쓰여진 문장을 해독하는 데까지 이르지만 한국말을 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이같은 신속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는 우선 공사관에 고용된 조선인들의 조언을 받았다. 그들 덕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었고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설명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한 예로 李寅榮을 꼽을 수 있는데, 꾸랑은 후에 그를 가리켜 "끈기 있고 통찰이 있으며 양심적인 협력자"라고 했다.[12]

「朝鮮書誌」의 저자가 서문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귀스타브 뮈델(閔德孝) 主教(1854~1933) 역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샹빠뉴 출신인 민주교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했다. 그가 아시아에 온 것은 1877년의 일이며 한국에는 1880년에 들어왔다. 아직 기독교 전도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다. 1886년 파리로 소환되어 바끄(Bac)街에 있는 파리 外邦傳教會 신학교의 강단에 섰으며, 1890년 주교 임명과 서품을 받고 1891년 2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당시 부임 9개월째를 맞고 있던 꾸랑과 곧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 시절 이미 시작된 兩人間의 서신왕래는 아마 그의 말년까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으며, 1923년 8월까지의 편지는 민주교에 의해 보관되어 본고의 주요 참고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13] 꾸랑은 그의 작업 경과를 주교에게 상세히 알리는

---

[12] *Ré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deux cahiers manuscrits in fol., inédits, 1891, p. IX, cf. infra, pp.62~63. 꼴랭에게 보낸 1891년 7월 3일자 편지에서 꾸랑은 李寅應과 卞元圭도 그의 협력자로 꼽고 있다.

[13] 본고에서 인용된 꾸랑이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한국교회사 연구소에 보관

한편, 역사적 또는 서지학적 방면의 정보를 그에게 照會하곤 하였다. 조선은 떠난 후 「三國史記」나 「東國輿地勝覽」 등과 같은 書誌의 편찬에 중요한 서적들을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탁한 것도 바로 민주교에게 였다. 그 중 희귀본의 경우, 민주교는 筆寫生을 시켜 꾸랑이 필요로 하는 서적의 사본을 만들게 하였다. 수많은 解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大東韻府群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조선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은 꾸랑의 야심한 계획은 서울에 남아 있던 그의 벗의 도움 없이는 결코 실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꾸랑과 꼴랭 사이에 오고 간 편지에 의하면, 당초 이 작업을 제안하였고 이후 단순한 충고자에 머물지 않고 解題의 일부를 맡아 저술하기까지 한 이는 바로 꼴랭 드 쁠랑시이다. 그는 꾸랑이 관심도 없던 나라에 파견되어 침울해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후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꾸랑은 “첫 3개월 동안은 무척 괴로왔읍니다. 당시의 정신상태로는 극히 사소한 일로도 조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곤 했읍니다” 라고 썼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낙이라면 저녁 식사 후에 상관과 오랜 대화의 시간이었다. 꼴랭은 동양어학교 교수들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미지의 나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발견한 것을 후배에게 일러 주고, 그가 수집한 조선서적을 소개하였다. 바로 이 대화 중에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조선문학의 목록, 더

되어 있다(『뮈땔 문서』).

나아가서 하나의 書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싹텄던 것이다.

이를 제안한 것은 꾸랑이 아니었다. 반대로 꼴랭이 마치 오래 전부터 자신이 구상해 온 기획인 것처럼 말하며 젊은 꾸랑의 도움을 구하였다. 꾸랑은 그를 믿고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목록 작성에 협조할 것을 응낙하였다. 처음 착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역시 꼴랭이다. 조선문학이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면 단순히 제목만 열거하기보다는 해설을 첨부한 書誌를 작성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적절한 입문서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朝鮮文獻一覽"을 서구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1891년 6월 동경으로 전속된 꼴랭은 꾸랑에게 저서의 계획표를 부쳤으며 同年 9월 9일 꾸랑은 이를 받았다는 전갈을 보냈다. 한편 그들의 의도를 동양어학교장 샤를르 셰페르(Charles Schefer)에게 알린 꾸랑은 그로부터 그들의 저서를 기꺼이 동양어학교叢書 (Publications de l'Ecole des langues orientales)에 포함시키겠으며 단지 인쇄소 선정 문제만 남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 해 말 합의를 보아 「조선문헌일람」(假題)은 파리의 에르네스트 르루(Ernest Leroux)社에 의해 빅또르 꼴랭 드 쁠랑시, 모리스 꾸랑 共著로 동양어학교 총서의 일환으로 출판되기로 결정되었다.

兩人은 각자 맡은 부분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1892년 초 갑자기 꼴랭은 共著로 하기에는 자신이 한 역할이 너무 적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모든

영광을 그의 젊은 벗에게 돌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더욱이 애초에 이 작업에 전념할 의도는 없었으며, 꾸랑에게 그 일을 권고한 것은 그로 하여금 주재국에 관심을 갖게 하여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고백했다.

2월 25일 꾸랑의 격렬한 답장 "뭐라구요? 이 책을 위해 하신 일이 전혀 없다구요? 제게 보내주신 해제 꾸러미부터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며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모두 누구의 발상으로 시작되었읍니까? 조선의 서지에 관심을 갖고 서점을 샅샅이 뒤져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 저였읍니까? 저의 반대와 주저를 잊으셨는지요. 몇 개월 동안 저를 설득하신 후에야 협력하기로 작정했던 바 아닙니까? 그것도 단지 공사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응낙한 것입니다. 시작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공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겠읍니까? 저의 생각은 뫼렌도르프(Möllendorf)식의[14] 극히 간단한 해제를 작성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살을 붙이고 설명과 분석을 더하여 생명을 불어넣은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게다가 누가 이 책의 계획표를 작성하고 서양 서적을 조사했읍니까?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다구요? 첫 발상, 실행 방법, 계획표, 記述 방식, 서지학적

[14] P.G. von Möllendorf, Manuel of Chinese Bibliography, being a list of works and essays relating to China, by P.G. & O.F. von Möllendorf, interpreters to H.I.G. Masesty's Consulates at Shanghai & Tientsin, Shanghai, Celest. Empire Office, 1876, VIII-378p., in-8.

접근,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에 달하는 5~6章 저술, 이 모든 것이 공사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다 할 수 있겠읍니까?"

이상과 같은 우정어린 질책도 꼴랭의 결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 하나의 자료로서 이를 보면 양인의 관계 그리고 특히 「조선서지」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그것 없이는 고작 꼴랭이 저자에게 미친 영향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前者의 결정적인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는 한편, 위 편지가 쓰여진 당시 엄청난 양의 작업이 남아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後者가 조선을 떠난 후 민주교에게 보낸 청구편지가 보여주듯이 해제 작성에 가장 필요한 일부 저서가 아직 그의 수중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꾸랑이 이같이 주변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이용한 자료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해제의 소재를 마련해준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설명키로 하고,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조사 당시 수준에 지니지 못했던 서적들의 존재 사실을 증거해 준 자료이다. 꾸랑은 「大典會通」 또는 「六典條例」와 같은 法典의 禮部分에서 도서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攷事撮要」에서는 1554년 유통된 상당수의 도서명을 찾아내었으며, 그중 地理部分에는 각 지방에 보존되어 있던 木板목록이 명시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저술되어 1669년에 출판된 저자미상의 「東京雜記」[15]로 그는 경주에 그 木板이 보관되어 있는 80여 서적의 제목을 알아낼

[15] 『東京雜記』라는 제목은 1669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 관한 이 저서를 펴낸 지방

수 있었다. 「通文館志」(1720년 초판)[16] 제8장에서 譯官들이 만든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재의 목판 목록과 62권의 「通文館志」 소장 도서 목록을 발견하였으며, 그외 「通文館志」편자가 참고로 했다는 68권의 문헌 목록 덕분에 그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題名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892년 민주교가 복사시켜 보내준 「大東韻府群玉」의 서두에 있는 이와 유사한 참고문헌 목록은 극히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89권 중 174권이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헌조사에는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쉽사리 간파되는 공백이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우선, 당시 조선에는 「조선서지」가 언급한 것 이외 많은 木板臺帳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17] 다음으로, 그의 해제작성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던 「東國文獻備考」에 대해 그가 쓴 바를 보자. 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중국인 馬端臨의 「文獻通考」를 본따 어명에 의해 1770년 출판된 것으로 꾸랑은 서울 체류시 한 부 입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동국문헌비고」에 文學史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관리가 命名한 것이다. 오늘날 흔히 『東京通誌』라 불리운다. 꾸랑은 1711년도 판을 한 부 구입하는 데 성공하여 참고하면서도 그 저술 시기가 1669년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16] 12권으로 된 「通文館志」는 그 외에도 많은 자료를 꾸랑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사실 譯官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조선과 주변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총람이라 할 수 있다.

[17] 鄭亨愚•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1979, 631p. 참조.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술과 문학에 관련된 부분인 「藝文考」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예문고」는 20년 후 1790년에야 완성되어, 1908년 나머지 부분과 함께 수정•보완되어 再版이 될 때까지 원고본의 상태로 남아 있어 왔었다. 꾸랑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의 漢書의 체계적 목록을 「예문고」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奎章閣 도서 목록의 未備함을 지적할 수 있다. 꼴랭이 구해다 준 奉謨堂 印章이 찍힌 「內閣藏書彙編」사본은 불행히도 제목만이 그것도 脚韻에 따라 쓰기 불편하고 나열된 내용이 극히 부족한 목록에 지나지 않았다. 꾸랑은 1866년에 편집되었다고 추정되는 「西庫藏書錄」이라는 훨씬 나은 규장각 도서목록이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끝내 모르고 있었다. 「서고장서록」은 각 도서에 대한 기입조항이 놀랄만큼 상세하다.[18] 꾸랑이 알지 못한 「서고장 서록」과 「문헌비고」의 「예문고」 兩書는 李朝가 현대 서지학에 물려준 최고의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다.[19]

두 가지 모두 꾸랑에게 결여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저서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게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선의 도서출판에 대해 좀더 완전하고 균형잡힌 一覽을 외부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은 왕실 도서관이

[18]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서울대학교, 1981, p.493, 7717번.

[19] 同上, p. IV 참조.

그만큼 은밀한 장소였기에 소장도서가 1950년의 전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만일 꾸랑이 이 도서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엄청난 수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을까? 오늘날 한국인의 눈에 비친 꾸랑의 공적은 한국의 도서 목록을 번역 소개했다는 점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꼴랭이 개척해 준 길을 밟아나갔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상점, 貰冊家, 절의 창고를 뒤져 당시의 지식층에 의해 무시되고 따라서 司書나 서지학자들에 의해서도 무시되어 있던 수많은 도서를 찾아내어 해설을 덧붙였다는 점에 있다. 불교서적, 이단서적, 그리고 특히 한글로 쓰인 민중문학이 여기에 속하며, 그 중에는 꾸랑의 소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망각되었을 서적들도 있다. 만일 이 불란서인이 이상적인 여건하에 왕실 도서관 출입하는 것마저 가능했다면 그토록 짧은 체재기간이었던 만큼 이상과 같은 조사를 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朝鮮書誌」가 겨냥한 서구 독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책이 완벽하지 않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은 오히려 그 풍부한 해제로 全지식분야에 걸친 미공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해제의 소재를 제공한 자료 역시 「조선서지」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제일 먼저 16세기 사전인 「大東韻府群玉」을 일컬어 1592년 임진왜란 이전의 古書와 그 저자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했으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 「通文館志」는 譯官層에 의한 저서에 관하여 탁월한 資料源이 되었고, 御定類書인 「東國文獻備考」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빠진 부분인 「예문고」야말로 그에게 가장 유용했을 터이다. 체계적 목록뿐 아니라 한국에 중국 문헌이 한국에 도입된 연대와 상황, 한반도의 여러 表記文字 또는 인쇄 기술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의 지식인들이 당대 自國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중국의 類書와 같은 일반 槪要書가 여럿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꾸랑이 사용한 것은 단 하나 金昌集의 「後自警編」뿐이다.[20] 1722년에 사망한 이 책의 저자는 韓末까지 세도를 부리게 될 老論의 거물이었다. 官學의 독단성을 타파하고자 했던 實學派에 의해 이루어진 유사한 성격의 저서에 대해 꾸랑이 전혀 전해듣지 못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李瀷(1579~1624)의 「星湖僿說」이 「조선서지」에 언급되어 있긴 하나 극히 간단하게 그것도 간접적으로 「東史綱目」의 설명을 따랐을 뿐이며, 韓致奫(1765~1814)의 「海東繹史」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꾸랑은 이들 저서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지식인 중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그들은 또 하나 중요한 저서 「海東文獻總錄」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는데 만일 꾸랑이 이를 발견했었다면 흥미 있게 보았을 것이며 편자 金休 (1597~1640)를

---

[20] 『朝鮮書誌』 p.XXIII : 卷 2, pp. 444~445. 3권으로 구성된 『後自警編』은 宋의 『自警編』을 따라 命名되었고 필자가 아는 바로는 再版된 적이 없다. 꾸랑이 가지고 있는 사본(이니셜 M.C., p. 444)은 불행히도 소실되었다.

자기의 선구자로 알았을 것이다.[21] 이 嶺南선비는 영남 지방 도처를 답사하면서 임진왜란의 화를 면한 서적을 조사하였다. 두 세기 후 불란서인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제목의 열거에 만족치 않고 해제를 첨부하였다. 그 덕택에 그 후 소멸된 많은 서적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海東文獻總錄」은 그 풍부성, 주제별 분류, 그리고 특히 진정한 서지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조선서지」의 先行者라 일컬을 수 있다. 두 저서 사이, 즉 1637년에서 1894년 사이 유사한 예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인용한 「海東繹史」의 42장부터 59장에 걸친 해제와 「鏤板考」[22]의 해제 정도뿐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결여는 「조선서지」의 약점임에 틀림 없다.[23] 그러나

---

21 『海東文獻總錄』1637. 대조 조사를 거친 도서의 수는 670을 헤아린다. 1969년 學文閣에 의해 처음으로 영인 출판되었다.

22 『鏤板考』7卷은 徐有榘(1764~1848)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홍명희에 의해 수정되었다. 再版 " 서울, 1941, 266p. 三版 : 변학사, 서울, 1965.

23 꾸랑의 문헌 조사의 또 하나의 공백으로 一然의 『三國遺事』(1280년경)를들 수 있다. 꾸랑은 『三國遺事』에 대해 유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데 그쳤다 : "사실과 우화가 뒤섞인 선동적 작품"(『朝鮮書誌』卷 2, pp.391~392). 현존하는 유일한 完本은 1512년의 목판 인쇄본으로서 꾸랑이 『朝鮮書誌』를 집필할 당시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희귀본은 일본인 今西龍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1921년 京都大學에서 영인본이 출판되었다(京都帝大文學部叢書 제6호). 京都대학은 꾸랑에게 한 부를 보내주었다(1923년 1월 21일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 그러나 『朝鮮書誌』를 집필할 당시 이 책을 직접 보지 못한 탓으로 그는 『三國遺事』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鄕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만일 이 향가를 읽었다면 鄕札 또는 史讀를 이용하여 신라인의 언어를 문자로 완전히 재현해 낼 수 있으며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의 서

여기서도 그것을 보상할만한 면이 없지 않다. 「大東韻府群玉」이 편찬된 16세기 말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이른바 "구두정보의 우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꾸랑은 그가 질문한 조선인들의 대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리하여 그는 李朝末 口傳의 증인이 되었다. 한 예를 들자면 당시 「九雲夢」의 저자가 金春澤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덕분이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 업무가 그다지 분주하지 않았던 젊은 꾸랑은 여가시간 동안 「조선서지」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정열을 쏟았다. 금석문 연구에도 관심이 있었던 그는 서울과 그 지방의 주요 묘소, 유적 등을 계획에 따라 답사하여 비명을 탁본하거나 베낀 후 공사관으로 돌아와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해독하였다. 1891년 8월 27일 꼴랭에게 그는 "이제 서울의 세 군데와 여기서 멀지 않은 묘소 한 군데만 남았다"고 했으며 9월 중 이틀에 걸쳐 강화도를 방문한 후 11월 6일 同人에게 "제가 기획한 바 서울과 그 주변의 묘소 연구가 끝났다"라고 썼다.

한국 금석문 분야에 있어서 그의 업적은 불행히도 서지학 분야에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이니셜 MC가 「조선서지」에 표시된 18개의 탁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중 절반 가량은 한국 금석문에 관한 3대 저서 중

문(『朝鮮書誌』卷 1, p.LXXXIX)에서 이두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꾸랑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口訣(또는 懸吐)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일러둔다.[24]

전통적 건축양식 또한 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서류 속에서 서울과 근교의 수많은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지형학적 일람표와 한국의 기념 건조물에 대한 원고를 찾아볼 수 있다. 몇년 후 1900년 12월 23일 기메(Guimet) 박물관에서 이 주제에 관한 강연을 했으나 내용이 출판되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현지 답사에서 돌아와 서재에서 해낸 작업은 「조선서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1891년 8월 27일 그는 꼴랭에게 "약 보름 전부터 외무성의 콩쿨에 제출 조선의 행정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다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는 자신있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11월 6일 "상당히 일이 연장되는군요", 12월 17일 "현재 마무리 단계인 이 작업으로 인해 「조선서지」는 10월초부터 방치된 상태" 라고 고백했다. 1월 15일 이 논문을 발송하고 곧 「조선서지」에 다시 몰두해야 했다.

1892년 2월 1일 뮈땔 주교에게 위탁된 *Ré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朝鮮職官歷代總覽」원고는 곧바로 본국에 보내져 통역관賞을 알 수 없는 연유로 저자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원고가 분실되지는 않았다.

---

[24]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府, 1919, 2卷 ;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중앙대학교, 서울, 1968, 14-286-15 p. ; 黃壽永, 『韓國金石文遺文』, 一志社, 서울, 1976, 456 p. 이상 세 저서 중 어느 것에도 올라있지 않은 꾸랑의 금석문 탁본은 『朝鮮書誌』의 3491, 3516, 3520, 3530, 3573, 3577, 3585, 3586, 3596번이다.

원고는 파리의 漢學高等研究所에 1958년 이래로 보관되어 있는데, 녹색 표지에 이절판 크기로 각각 282p, 154p의 두 권으로 되어있고 모리스 꾸랑의 서명이 있다. 한눈에 그의 또 하나 걸작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卷頭의 목차를 보면 내용 차례가 특별하고 독창적임을 알 수 있다. 서두에서 꾸랑은 조선의 諸法典을 비롯 그가 사용한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가 참고로 한 諸法典은 「大典會通」(1865)에서 찾아낸 것으로 모두 6部로 나뉘어 각각 六曹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明의 「大明律」을 모방한 이 같은 분류법의 단점은 중앙행정기관들이 史曹를 매체로 간접적으로 언급되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이를 수정하고자 꾸랑의 「總覽」은 우선 王室과 그에 관련된 행정기관 그리고 그가 "일반고등행정기관"이라 명명한 것을 제1장에서 4장에 걸쳐 취급하고 있다.

제5장부터 10장까지는 전통적인 六分法에 따라 六曹의 행정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지역행정-「文獻備考」의 경우처럼 지방행정에 그치지 않고 수도행정도 포함-에 관련된 사항과 군사조직을 취급한 사항을 추출하여 11장~13장에 재정리하였다. 다음 9 개장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는 全朝鮮社會 階層을 망라하고 있다. 양반에 관한 제14장에서 그는 과거와 관직의 등급을 다루었으며, 외교문제는 譯官層 다음 章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良民을 취급한 제19장에는 「文獻備考」보다 더 상세한 동업조합 목록과 匠人職種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그의 「總覽」은 이에 상응하는 조선 저서들보다 더 조리 있고 훨씬 참고하기 편리하다. 각 제도마다 우선 그 제도의 前身과 변천 과정을 기술한 후,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大典會通」을 참조한 것이다. 사용된 모든 용어에 대해 한자, 그리고 한글식 발음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번역이나 해석을 첨부하였으며 심지어는 따로 注를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의 古書 중 색인이 포함된 예가 全無한 것과는 달리 꾸랑의 「總覽」은 색인이 제2권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總覽」이라는 題名에 충실히 답하였다고 하겠으며 오늘날에도 출판된다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1892년 2월 20일 꾸랑은 주교관에 전갈을 보내어 北京으로 전속발령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는 3월 10일 단 21개월의 조선체류를 마치고 제물포를 떠났다. 떠날 즈음 그는 마지못해 왔던 이 나라에 대해 커다란 애착을 지니게 되었다. 1891년 6월 이후 꼴랭 드 쁠랑시에게 쓴 편지와 1892년 3월부터 민주교에게 쓴 편지 내용은 조선과 「조선서지」로 넘쳐나고 있다. 그는 이 나라로 되돌아갈 소망을 안고 있었으나 몇 차례에 걸친 그의 전속신청은 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인들 역시 自國文化에 그같이 깊은 관심을 표한 이 외국인을 잊지 않고 있었다. 1896년 중 學部大臣 閔種默은 1895년부터 다시 조선에서 불란서를 대표하고 있던 꼴랭 드 쁠랑시를 두 번이나 방문하였다. 목적은 모리스 꾸랑으로 하여금 외국고문의 자격으로 學部에서 일할 수 있게끔 불란서 정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교육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젊은 관리양성에 참여하는 것이었다.[25] 꾸랑은 2년 간의 첫 임기를 수락하고 서울에 갈 목적으로 1897년 휴직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閔種默은 王의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에서 막중한 인물 전임 노서아公使 웨베르(Waeber)에게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웨베르는 즉각 이 계획에 반대하였고 그의 반대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꾸랑의 두번째 체류가 더우기 이번에는 조선 정부와 보다 더 긴밀한 접촉하에 현실화되었다면 서구의 한국학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1892년 꾸랑이 北京에 머문 것은 겨우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어 학교의 허가와 르루社의 동의를 그에게 알려온 꼴랭에게 그는 6월 1일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매사 순조롭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만이 부진하군요. 서울에서 北京으로 옮기는 통에 6주간 작업이 중단되었고 여기서는 서울서 하던 분량의 절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行政, 儀禮, 佛教, 道教 부분은 완성되었읍니다. 佛教, 道教 부분에서는 主事와 함께 몇 가지 오류를 시정하였고 보완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마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25] 1897년 1월 5일 외무성에 보낸 꼴랭의 보고서. 꾸랑이 꼴랭에게 보낸 1897년 2월 5일, 4월 9일, 9월 20일자 편지(외무성, 문서보관소, 꼴랭 개인 문서).

같습니다. 역사서적에 관한 긴 해제가 아직 남았지만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적 자체가 수중에 있지 않으니 결국 이미 만들어 놓은 색인카드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데 지나지 않을 터이니까요. 오히려 集 부분에서 할일이 더 많읍니다. 그 著者들에 대한 개별적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도에 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연구해 나가면 두 달 가량이면 끝날 것 같읍니다. 와일리(Wylie)의 저서와 四庫全書總目을 참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위의 글월을 써보낼 당시까지도 꾸랑은 「조선서지」를 혼자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데 반대하였다. 同 편지에서 꼴랭에게 그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서문을 쓰는 것은 당연히 공사님의 권리입니다. 서문을 작성하신 후 제게 보내주십시오. 혹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첨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래 주신다면 제가 서문을 쓰는 것보다 좀더 빨리 인쇄에 착수할 수 있겠읍니다. 더욱이 세부사항과 문서 속에서 허위적대고 있는 저보다 이 작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게다가 일본과 흥미로운 비교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이 서문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읍니다."

이런 설득도 허사로 돌아가 꼴랭은 거듭 사양하고 꾸랑으로 하여금 서문을 쓰게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혼란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인쇄와 교정도 맡아 처리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해 10월 꾸랑은 중국을 떠나 귀국하였다. 파리에서 모친과 동생 앙리를 재상봉하였고, 12월 민주교에게 동양어학교장의 딸 엘렌 세페르(Hélène Schefer)와의 약혼소식을 알렸다. 결혼식은 1893년 1월 30일 이루어졌다.

부부는 신혼 첫 해 약 반년을 파리에서 보냈다. 꾸랑은 5월 7일 민주교에게 “귀국 이래 매우 분주하여 사실 제 일이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양어학교 도서관 중국도서목록 작성을 맡아 이미 끝냈고 「조선서지」도 원고에 관한 한 착실히 진척되고 있읍니다. 제가 극동으로 돌아가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출판될 것입니다. 런던에 며칠 들러 대영 박물관 소장의 한국 서적을 열람하였는데 흥미로운 책이 얼마간 있었읍니다” 라고 썼다.

샹베리(Chambéry)부근 라 끄롸-쌩-알방(La Croix-Saint-Alban)의 처가에서 그는 7월 20일 민주교에게 北京 공사관에 배속되어 중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새 임지에 닿기 전 東京 공사관의 수석통역관 죠셉 도트르메르(joseph Dautremer)의 대리근무를 하라는 파리의 명령을 받았다. 그로서는 나쁘지 않은 계획변경이었다.

11월 18일 船上에서 그는 “일본에 머무는 것이 환경, 인간 관계, 건강 등 뭐로 보나 북경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고 저로서도 北京과 서울을 이미 거쳤으니 東京은 큰 관심사이며 저의 극동순회를 완전하게 해 줄 것입니다. 三國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장차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는 “東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의 연구와 견해확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의 주관심사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구라 하겠다.

東京에서 그의 상관인 싱키에비치(Sinkiewicz)가 시키는 일은 별로 없었고 이 점 꾸랑에게 잘 된 일이었다. 일본어 공부와 「조선서지」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의 편지를 보면 「조선서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는 민주교에게 부탁하여 부족한 참고 도서를 찾게 하였고 그 자신도 동경 도서관에 「高麗史」의 사본을 만들었다. 그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적 중 「海東諸國記」는 그 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上野도서관과 增上寺院에 보관된 한국 서적을 검토하던 중 增上寺院에서 15세기에 일본으로 가져온 한국 대장경의 뛰어난 사본을 직접 보게 된다.

1894년 2월 힘겨운 흥정 끝에 東京의 어느 인쇄소와 「조선서지」 인쇄 계약을 맺었다. 12월 꾸랑은 서문 別冊本을 한 부 민주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꾸랑 부부가 동경에서 보낸 두 해 동안 두 아들의 출생을 보았다. 장남 샤를르는 1894년 4월 16일, 이어 루이(Louis)가 1895년 2월 28일에 태어났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꾸랑은 떠도는 생활에 진력이 나기 시작했다. 도트르메르의 대리근무를 맡을 당시 그를 이어 수석통역관직에 정식 발령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희망은 그가 1894년 6월 복직함으로써 무너지고 꾸랑은 새 임지를 기다리는 동안 그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 되었다.

1895년 3월 15일 그는 민주교에게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작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안정성입니다. 한 자리에 두어달조차 머무를 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이 생활은 독신일 때도 피곤한 일이었으나 가족을 거느린 몸이 되니 견딜 수 없을 정도군요”라고 토로하였다.

그 다음날, 서울로 보내달라는 꾸랑의 청에도 불구하고 天津의 불란서 영사관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6월 1일 가족과 함께 일본을 떠났다. 같은 날 「조선서지」제2권을 불란서로 보냈다. 제3권의 인쇄도 상당히 진전되었다. 도트르메르가 1차 교정을 보고 校正刷가 東京과 天津 사이를 오가며 2차 3차 교정이 이루어졌다.

중국 도착 직후 순탄치 못한 극동에서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날 겨우 한 시간 간격으로 두 아들이 차례로 콜레라에 희생된 것이다.

불란서로 귀국한 후 1896년 9월 7일 셋째 아들을 보게 되는데 역시 샤들르라 이름하였다. 꾸랑 가족은 파리에 정착하였다. 그가 꼴랭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호된 경험을 겪은 꾸랑은 장래 다른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즉 1895년 12월 23일 당시까지 대리근무를 하던 그가 정식으로 天津의 통역관 발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만한 자리를 고등교육기관에서 획득해야만 했다.

더 나은 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1897년 2월 4일 국립도서관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립도서관의 극동 특히 중국 서적은 그 사이 현저하게 분량이 늘어나 새로운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1853년 스따니스라 쥘리앵(Stanislas Julien)에 의해 만들어진 舊목록은 그 정확성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도서관측은 「조선서지」의 저자에게 이 일을 부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전임자인 레뮈자(Rémusat)나 쥘리앵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꾸랑 역시 체계적이며 설명이 가해진 목록을 만들어야 했다. 이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표 확정이다. 심사숙고 끝에 꾸랑은 중국 서지학의 전통적 분류법을 피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가 서문에서 밝혔듯이[26] 이 작업은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식을 채택하게 되면 일본 서적이나 중국 학자들의 경멸대상이던 불교 또는 기독교 서적, 소설, 희곡을 분류하는데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랑의 이 같은 선택에서 하자를 찾을 수 없다.

그 반면에 유감스러운 점은 꾸랑이 다른 면에서는 쥘리앵을 능가하면서도 한 가지

[26] Maurice Courant, Bibliothèque nationale*,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et japonais*, Paris, 1900~1912, 8 fasc. en 2 vols., pp. I~III.

치명적인 점에서 그의 뒤를 따랐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어로 기록한 것은 도서명 뿐 저자명을 위시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로마자로 옮겨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꾸랑의 초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항상 완전히 순 중국어로 서적 대조기입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애석한 일이다. 그에게는 課外작업이었을 로마字化는 오늘날 이 목록의 주요 약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의 목록은 시대에 뒤떨어져 역사적 관심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록에 올라있는 서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라면 당연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따라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로마자보다는 原語로 기록된 것이 월등 편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나 당시 꾸랑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다. 아니면 좀더 넓은 독자층에게 중국 서적을 소개하고자 하는 서지학자적 관심이 작용했던 탓일까.

꾸랑은 이 목록 작성으로 인하여 그로서는 생각치도 못했던 엄청난 과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양심적인 그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보다 나은 일에 쏟을 수도 있었을 시간과 정열이 여기에 소모되었다. 1897년 2월 5일 민주교에게 그는 “이 일은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2년 정도 걸릴 듯 합니다”라고 했으나 이는 연이은 새 도서 구입을 고려치 않고 한 이야기이다. 실제로는 15년이 걸려도 끝내지 못하였다. 1900년 파리를 떠난 후에도 꾸랑은 매년 여름 2개월씩 수도에 머무르면서 1897년에 시작한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 冊은

1912년에 출판되는데 9,081번을 헤아리며 “類書”편인 제21장에서 끝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서문에서 기획한 바에 의하면 “叢書”편인 제22장과 “雜書”편인 제23장은 계속될 예정이었으며 꾸랑의 서류속에서 22장에 대한 원고와 교정쇄가 발견되었다. 또한 여기서 취급된 것은 중국 서적에 국한되었고, 그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서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되었었다.

1897년 꾸랑이 이 일을 맡은 것은 생활을 위한 임시방편이었으나 덕분에 수많은 자료에 익숙해 질 수 있었다. 2월 5일 민주교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그는 “이렇게 해서 점점 학문의 길로 깊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읍니다.” 라고 했다. 그가 원하는 자리에 지원하려면 출판 경력이 풍부해야만 했다. 같은 날 꼴랭에게 “이번 불란서에 머무는 동안 여러 논문을 발표하여 동양학계에 저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썼다.

꾸랑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조선서지」제3권이 출판된 이듬해의 일이다. 그렇다면 「조선서지」의 출판은 그의 명성의 확고한 발판이 되어주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것인가? 불행히도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다. 그의 「조선서지」는 당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겠으며, 또한 저서 자체가 가진 모호성 탓이기도 하다. 「조선서지」라는 제목과 「조선문학일람」이라는 副題 사이의 대조에서 이미 그 모호성을 간파할 수 있다. 서지라 함은 通讀하기보다는 오히려 참고하는 전문서적을

의미하므로 제한된 수의 관련 지식인 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문학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한 저자의 원래 의도를 고려할 때에는 이는 적당치 못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더 무던하고 덜 학문적이며 단숨에 읽어내릴 수 있는 책을 출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5회에 걸친 번역본의 경우처럼 17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탁월한 서문[27]만 따로 출판하였다면 그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꾸랑이 章別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 문학 • 역사 • 언어학 • 민족학 • 과학기술사 • 종교학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적어도 「조선서지」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이들을 위해 꾸랑은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저서를 보다 깊이 분석하고, 출판되지 않은 책까지 덧붙였으며, 또한 중요한 자료를 불어로 정리해

---

[27] 日譯 : 淺見倫太郎 譯, 『朝鮮藝文誌』, 朝鮮總督府, 1912, 122p. ; 小倉親雄 譯, 『朝鮮書誌序論』, 『讀書』, 1938, 2~3號.

英譯 :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trans. By Mrs W. Massy Royds, in *Transactions of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V(1936), pp.1~99.

韓譯 : 金壽卿 譯, 『朝鮮文化史序說』, 凡章閣, 서울, 1946, 191 p. ; 朴相圭譯『韓國의 書誌와 文化』, 親丘文化社, 서울, 1974, 220p.

이상과 같은 序文의 完譯本에 앞서 J.S. Gale에 의해 부분적으로 英譯된 바 있다 : *The Korea Review*, 1901, pp.155~163, 289~293. 그리고 原文은 꼴래즈. 드. 프랑스에 의해 「*La Corée ancienne à travers ses livres*」이라는 서명으로 1984년에 재판되었다(Cahiers d'études coréennes, no.2).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랑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아 그의 책이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지」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연결된 미미한 小國을 연상시키는 형용사 역시 전문가들의 흥미를 북돋을 만한 것도 아니었다.

동양학계의 반응으로는 제1권이 출판되었을 때 에두아르 샤반느가 쓴 감탄어린 서평을 들 수 있다.[28] 그는 「조선서지」의 심오한 분석과 이것이 평범한 서지 이상의 작품임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한국 인쇄물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 중국 서적의 再版, 한반도에 미친 유교사상의 "경탄할만한 영향력"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그의 長文의 서문에 의해 밝혀졌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낭독상 편의를 위해 한문 문장 사이에 삽입한 懸吐, 1443년 발명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字母音, 한국 역관들의 언어학적 저서에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그는 "극동문화사에 한 章을 첨부한 작품"이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서지」의 편자가 하루 속히 "불란서로 돌아와 국립도서관 소장의 중국 서적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되기를"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서평을 마쳤다.

이와 같이 샤반느는 그의 동양어학교 동창 꾸랑에게 그가 정성을 다해 개척한 땅을 남의 손에 맡기고 중국과 중국 서적 목록 작성 쪽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라며 누구를 들 수 있겠는가? 꾸랑 이전에 로니, 셰르제르(Scherzer),

---

[28] *Journal asiatique*, 9-V(1895), pp. 539~542.

쟘땔 같은 불란서 동양학자들이 한국에 관한 짤막한 논문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꾸랑 이후 한국학에 도전하려면 종전 이상의 대담성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이제는 「조선서지」가 불란서에 도입한 방식을 따라야만 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지명 인명과 용어를 중국 발음대로가 아니라 한국 漢字音대로 표기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을 익혀야만 한국에서 편집된 한문사전으로 한국식 한자 발음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대수롭지 않은 난점이지만 동기 유발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며 漢學者들로 하여금 앞으로 한국학은 전문가의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이처럼 「조선서지」에 대해 개척된 길을 추구해 나가는 데 가장 적절한 인물은 두말할 나위없이 꾸랑 자신이었다. 당시에 쓴 편지에서 피력하고 있듯이 그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다.

민주교에게 보낸 1898년 12월 30일자 편지에서 “귀국한 이래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저의 작업이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는군요. 2년 동안 서울에서 수집한 자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지 아직 모르겠 읍니다. 언젠가는 실현되겠지요. 그러자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제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확고하게 정착을 해야겠지요.”

“한국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라고 1902년 10월 29일 되풀이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관한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고 싶은 일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군요”(1903년 7월 17일 꼴랭에게 쓴 편지).

귀국 이래 한국에 대해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1897년 2월 21일 기메 박물관에서 “9세기까지의 한국, 일본과의 관계와 일본문화의 기원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29] 여기서 그는 한국 史料와 일본 사료, 즉 「삼국사기」와 「日本書紀」를 비교하였다. 같은 해 발표된 논문 “한국의 판소리와 무용”은 그가 직접 목격한 현장을 간단히 기술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논문은 1898년에 발표한 “고구려 왕국의 기념비”이다. 이것은 1875년에 발견된 그 유명한 고구려 廣開土王碑에 관한 서양 최초의 연구논문이다. 1899년 12월 17일 다시 기메 박물관에서 이에 못지 않게 참신한 내용의 강연회를 가졌다. “조선의 종교의식의 연혁과 개요”라는 제목 아래 그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의식 중 초자연적 실체에 호소하는 모든 의식을 총망라하였다. 그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폭넓은 기준에 따라 公式祭禮, 제사, 자연숭배와 古俗, 불교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묘사는 간결하지만 짜임새 있는 일람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종교현상의 다양성에 대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 관하여 꾸랑이 발표한 대개의 연구서가 그러하듯이 이

[29] 이 강연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꾸랑의 다른 10개 논문과 함께 *Etudes coréennes de Maurice Courant*이라는 제목 아래 재출판되었다 : Cahiers d’études Coréennes, n° 1, Collège de France, Paris, 1983, 293 p.

역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당시 동양학자들조차 모르고 있던 기본 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그 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소개서이다.

1898년 초 서울의 꼴랭 드 쁠랑시는 그의 벗에게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작업을 제안하였다.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될 만국박람회를 대비하여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한 지리 • 역사 • 행정 • 사회 • 지질 • 식물 전체를 총망라한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꾸랑은 그가 수집한 충분치 않은 자료로 2년도 못미치는 기간 동안 그같이 야심적인 기획을 성공리에 마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1900년 박람회의 한국관 소개서를 쓴 이는 역시 꾸랑이었으며 80년이 지난 오늘날 감동없이는 읽을 수 없는 名文이다. 한국을 사랑하는 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 나라에 대해 느낀 감정이 바로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꾸랑이 하고자 열망한 바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관심이 아무리 지대하다 해도 한국학 연구는 그의 진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립도서관 일은 임시직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보수도 신통치 않아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다. 동양어를 가르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했다. 동양어학교의 경우, 그에게 처음으로 중국어를 가르친 가브리엘 드베리아 교수는 1844년生으로 복직한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1837년生 레옹 드 로니 교수는 1868년 강좌 개설이래 30여년간 줄곧 일본어과를 맡고 있었다. 꼴레쥬 드

프랑스의 샤반느는 꾸랑과 동갑이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은퇴할 만한 인물은 이미 六旬의 로니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1897년 2월 5일 꼴랭에게 쓴 편지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동양어학교 일본어과 자리를 겨냥하고 있읍니다. 말은 않고 있지만 이 곳 사람들 모두 제 생각을 알고 있읍니다. 일본어 문법책과 몇 가지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라고 했다.

1897년 중 「日本式漢字音讀과 訓讀」에 대한 그의 논문[30]이 『아세아 學志』에 실렸으며 1899년 문법책[31]과 「일본의 정기간행물」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32] 외국 고문의 자격으로 조선에 부임할 가능성을 타진할 때에도 레옹 드 로니의 자리에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일본어과에 임용되거나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수를 누린 로니 교수가 1907년 일흔살로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그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꾸랑을 향해 1897년 문을 연 것은 오히려 중국쪽이었다. 병이 든 샤반느는

---

[30] Maurice Courant, "De la lecture japonaise des textes contenant uniquement ou principalement des caractères idéographiques", *Journal asiatique*, 1897, pp.218~265.

[31] Maurice Courant, *Grammaire de la langue japonaise parlée*, E. Leroux, Paris, 1899, Ⅳ-Ⅲ-129p.

[32] *Journal asiatique*, 1899, pp.504~530.

꾸랑에게 1897~1898학년도 이어서 1898~1899학년도 강의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꾸랑이 선정한 강의 주제는 “중국문화의 변천, 唐代를 중심으로” 였다. 1898년 10월 21일 민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상당히 묵직한 일거리 입니다. 이 주제로 책을 쓰자면 수년 걸릴 것 같읍니다”라고 피력하고 있으나, 이후 출판된 저서 중 이 야심적인 기획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직후에 포기한 듯 하다.

1899년 꾸랑은 바라던 자리를 드디어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기회는 일본어과가 아니라 중국어과에서 발생했다. 가브리엘 드베리아 교수가 55세로 사망하여 공석이 생긴 것이다. 꾸랑의 지원서는 꼬르디에(Cordier)와 브와이에(Boyer)에 의해 11월 6일 교수회의에 제출되었다. 7년 연상의 경쟁자 아르노 비시에르(1858~1930)는 중국에서 19년 간 통역관으로 근무하여 중국어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그의 지원서는 1898년 에 사망한 샤를르 셰페르를 이어 동양어 학교장이 된 바르비에 드 메나르(Barbier de Meynard)에 의해 제출되었고, 로니와 보네(Bonet)도 후원하였다. 오랜 토론끝에 교수회의는 학자보다는 실무경력자를 우선하기로 결정, 비시에를 제1순위에 놓을 것을 6대 5로, 꾸랑을 제2 순위에 놓을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날 열린 教學會議에서는 前者 선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제1순위 표결에서 꾸랑은 단 한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1월 24일 문예학술원에서 27표중 24표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은 꾸랑의 이름이 었다.

동양어학교장은 문예학술원에 맞서 비시에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드베리아 교수가 비시에르를 천거한다는 뜻을 남겼고 샤반느 역시 그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꾸랑을 가리켜 중국학자라기보다는 일본학자라고 주장했다. 사실 어긋난 주장이지만 1897년 꾸랑이 일본어과를 겨냥하고 발표한 글들을 미루어 볼 때에는 납득할 만하다. 이어서 바르비에 드 메다르는 “꾸랑이 귀국 이래 심오한 연구에 몰두한 것은 사실이며 그 방면에서는 비시애르의 경쟁상대가 될 만하다. 그러나 동양어학교가 바라는 교수는 해당 언어에 대해 오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은 바로 3년 전 「조선서지」를 수상한 바 있는 학술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문예학술원은 교수회의의 결정을 인가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아르노 비시애르로 결정하여 문제를 종결시킨 것은 문교성의 대학국이었다.

이리하여 꾸랑이 파리에서 중국어 강의를 맡을 소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꾸랑은 일본어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교수가 생각보다 근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설령 그의 퇴직까지 7년 간 참고 기다릴 방편이 있었다 해도 학자가 된 그로서는 일본어에 능숙한 통역관에게 또 다시 苦杯를 마시게 될 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므로 수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33]

[33] 당시 파리에서 극동연구가에게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단 두 군데, 동

“실망이 컸다”고 12월 18일 민주교에게 고백하고 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조차도 1899년의 결정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파리의 교단으로부터 제외됨은 곧 중국•한국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 도서관과 동양어학교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한다. 물질적 근심없이 수도에 머물러 양 도서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볼란서 동양학 특히 한국학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역경을 겪으면서도 통역관으로 복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 탐구와 후진 양성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비시애르에 대해 그는 민주교에게 “저의 경쟁자의 재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교육자적 자질에 관한 한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파리가 아니더라도 교직 방면으로 계속 추구하였다. 벌써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었다. 1898년 6월 26일 그는 꼴레쥬 드 프랑스의 대리 강의가 끝났음을 꼴랭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가지 전망이 보입니다. 리용에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파리를 제외하면 극동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리용 이었다.

양어학교와 꼴레쥬 드 프랑스 뿐이었다. 전자의 경우 중국어과 교무직은 비시애르에게로 낙찰되었고 일본어과의 레옹 드 로니 교수는 1907년 정년으로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고수하였다.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는 에두아르 샤반느가 그의 화려한 경력의 제 일보를 내딛고 있는 바였다.

이미 1844년 리용의 상업회의소는 생떼띠엔느(Saint-Etienne) 상업회의소와 함께 라그르네(Lagrené) 사절단에 참가할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은 중국과 협상 끝에 같은 해 黃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855년부터 누에 전염병이 번져 리용의 견직산업은 원자재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했으며 따라서 이들 나라와 직접 관계를 맺고 현지에 지부를 설치 하였다. 1895년 리용 상업회의소는 중국에 교역 사절단을 파견, 2년간 중국남부를 시찰하게 하였다. 귀국 후 발표한 방대한 보고서는 중국인과 거래를 하려면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순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했으며 그 나라 언어를 익혀야만 미심쩍은 중개인들을 통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98년 초 꾸랑에게 접근한 것은 이상과 같은 관찰의 당연한 귀결이다. 리용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꾸랑에게 그런 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리용 사절단장 에밀 로셰 영사 덕분인가 하다. 로셰는 1891년과 1892년 꼴랭 드 쁠랑시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 꾸랑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를 잘 아는 인물이었다.

꾸랑이 리용으로부터 받은 제안은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불란서 新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획의 일환이었다. 1899년 1월 10일 인도지나 총독 뽈 두매르(Paul Doumer)는 리용 상업회의 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事前에 있던 회담의 내용에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불란서 식민지와 교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였다.[34] 이를 위한 "식민지 강좌" 보조금조로 매년 3만 프랑을 리용 상업회의소에 기탁할 것을 약속하였다.

약속을 공식화 해달라는 사업회의소의 요청을 받은 총독은 1899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주저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해부터 매년 만프랑의 보조금 지급을 선언하고 중국어와 安南語를 담당할 교수 1명과 중국•安南 출신 보조교사를 각각 1명씩 관련기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상업회의소는 이 약속을 정식으로 인가하고 중국어 강의에 대해서는 총독이 교수 월급을 제공해 주면 충분하다고 기별하였다.

그러는 동안 상업회의소는 담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리용대학과 상업학교의 협조 아래 새 기구의 방침을 세워나갔다. 8월 31일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보면 그 신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2년 단위의 학교가 아니라 겨우 1년으로 한정된 "강좌"이다. 리용대학이 구상한 강좌 내용은 "일반 상식"을 초월하여 "지나치게 학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최고의 학자들"이 맡을 것이라 하였으니 前後 문맥 사이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식민지사, 영어, 식민지 생산물, 식민지 위생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도지나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동양어 특히 중국어 강의의 개설

[34] 1899년부터 1901년 사이 리용 상업회의소 年報 참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거만하다 할 정도로 신중한 문구이다. 교역 사절단의 보고서는 언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리용의 위원회를 그다지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측은 총독의 재정지원 약속도 못 미더워하였다. “리용의 교수직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읍니다. 아무도 자금을 대려하지 않는군요” 1899년 12월 18일 꼴랭에게 이같이 써보낸 꾸랑은 바로 그 날 뽈 두매르의 확인 전보가 상업회의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음날 부름을 받은 꾸랑은 “중국의 일상생활”에 대한 야간 강좌 주 1회, 중국어 강의 주 2회를 담당할 것을 수락하였다. 前者는 상업회의소에서 후자는 문과대학에서 강의하기로 하였다. 꾸랑은 꼴랭에게 “교수직”이라 했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리용 대학은 단지 강의실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중국어를 대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외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꾸랑을 교원의 일원으로 포섭하였다. 이미 외무성에 사표를 제출한 모리스 꾸랑은 1900년 5월 1일자로 문교성에 의해 리용대학교 문과대학 강사로 임명되었다. 꾸랑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업회의소가 주도한 이상과 같은 합의의 최대의 수확은 대학에 소속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그외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상업회의소측도 꾸랑의 “식민지 강좌”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당초의 태도를 버리게 되었다. 심지어 1901년 5월 리용대학이 꾸랑을 독점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자 그를 포기할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리용지역에 정착한 꾸랑은 그의 여생을 여기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의 가족은 리용시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에뀔리(Écully)에 자리를 잡았다. 리용 생활에 대해 꾸랑은 좋은 첫인상을 받았고 이후로도 실망하지 않은 것 같다. 파리출신이면서도 수도를 혐오하였다. 1896년 12월 9일 閔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제가 불란서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파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파리의 기후, 소음, 협소함 등 모두 제 기호에 맞지 않읍니다”라고 했다. 반면에 리용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시하곤 하였다. 상업회의소에서는 1900년 1월 25일에 문과대학에서는 3월 7일에 개강하였다. 그는 양면에서 받은 “진지한 호응”에 기쁨을 표명하였다. “바탕이 우수합니다. 이로서 이 지역에 공헌하게 되며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첫 해 대학 강의에 등록한 학생은 15명 가량이었다. 어느날 총장은 그의 강의를 청강한 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꾸랑씨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다. 약간 느린듯 하면서도 확신에 차고 폐부를 찌르는 어조. 심오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 다음해부터 시간 수가 주당 6시간으로 늘어났다. 꾸랑은 이 기회에 그의 어학 강의의 편성을 바꾸었다. 문과 대학에서 文語를 두시간, 상업회의소에서 口語를 3시간씩 가르쳤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이러한 분류를 포기하고 빨레 생 삐에르(Palais Saint-Pierre), 이어서 앙뻬르 (Ampère) 고등학교의 교실을 빌려 文語

• 口語를 종합한 초급 중국어를 강의하고 같은 내용을 문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리용대학은 꾸랑의 강의를 확보하기 위해 1903년 중국학 학위를 제정하였다.

어학 강의는 중단없이 계속된다. 수강생 수는 전쟁기간 중 두명 내지 세명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한다면 최고 18명 최저 6명을 헤아렸다. 대학 당국은 이 같은 성황에 약간 놀란듯 하다. 1902~1903년도 “꾸랑 선생의 학생은 수도 많을뿐더러 끈기가 있다”, 1903~1904년도 “그의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모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상업회의소의 극동문화에 대한 강의에는 보다 더 폭넓은 관중이 모였다. 처음 몇해 동안 20여명이 정규적으로 그의 강의에 참석하였다. 개괄적인 내용을 매년 무성의하게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극동문화를 여러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의 강의 제목으로는 “開放市와 大港口”(1902~1903), “중국과 조선의 法, 新日本法典”(同年), “사회구성요소 : 가족, 공동체, 행정 구역, 帝國”(1901~1902, 1903~1904, 1909~1910), “중앙아시아와 유목민과 주변 지역의 정착민”(1914~1915), “캄보디아와 태국사회”(1904~1905)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다 때로는 중국 각 지역 또는 주변 국가에 대한 지리학을 첨가하였다. 또한 그의 1929년도 강의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자 노력한 근본적인 諸 개념을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재삼 환기시키곤 하였다.

2년간 주당 단 한 시간으로는 입문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매주 2회씩의

어학강의에서도 기초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중국어란 부수적인 과목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배운지 얼마 안되는 중국어는 아시아에 교역 또는 행정 계통으로 진출하는 방편이었고, 그 중 현지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계속한 학생들은 그들의 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외교 통역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동양어학교 졸업장이 필수적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동양학자 輩出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꾸랑은 제자 중에서 앞으로 그의 후계자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실상 그런 인물이 배출되지도 않았다. 리용과 그 주변에서 아시아 애호가가 얼마간 양성된 것이 꾸랑의 공적이라 한다 해도 교직생활 35년에 진정한 의미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초보적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 아무도 그 수준 이상의 동양학 공부로 접어들지 않았다. 꾸랑은 달리 발휘할 수도 있었을 그의 재능을 여기서 헛되이 소모하였던 것은 아닌가? 「조선서지」와 같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에게 고차원의 강의를 하는 한편 그의 능력을 마음껏 전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더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당사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돌이켜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순수학문에 대한 소명을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 근무 초기 실무자였던 그는 꼴랭의 권고에 못이겨 여가 선용이라 여기고 발을 들여놓았고 시작하고 나서야 탐구의 진미를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다른 잠재적

자질을 모르지 않았다. 1899년 동양어학교 강단을 놓고 겨룰 때 경쟁자보다 자신이 나은 교사라고 자인하였었고 리용에서 그가 받은 총장의 평가와 청중의 신뢰도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교사로서의 자질은 실제로 확인되었다 하겠다. 과거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한편 아시아의 정치 경제 현실 또한 법학사이자 前 외교관인 그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일련의 소논문은 그의 극동문화 강의 제목에 상응하고 있다. 1901년에 출판된 연구논문집 「중국의 풍속과 제도, 인간과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 강의가 바로 “사회구성요소”였을 것이다. 이 논문집에서 꾸랑은 同시대에 중국을 소개하고 있다. 이같이 화려하고 생기에 넘친 묘사는 사물의 본질에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끈기와 관용을 가지면서도 습관의 힘에 시야를 흐리지 않는 관찰자가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北京의 어느 상가와 그 곳의 점포, 가게 뒷방 등에 대한 그의 묘사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하고 짜임새 있는 설명, 중국의 관습법을 서구의 성문법과 비교 설명한 데서 그의 법학사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집의 각 논문은 1901년의 독자에게 신선감을 주지는 못했어도 오늘날에는 유용하다.

그의 대중화 자질은 1903년 4월에 脫稿한 일본 근대화의 주역 大久保利通(1830~1878)傳에서도 나타난다. 이 소책자는 일본 官人연구의 형태를 띠면서도 시사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꾸랑의 의도는 일반 대중에게 과거의 일본과 그 나라가

겪은 변화의 본질을 동시에 일별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그는 閔주교에게 “일본인 모두를 좋아하라고 할 수 없지만 존경할만한 인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써 보냈다.

1900년부터 1914년 사이 극동사태의 향방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꾸랑의 협조가 종종 요청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1904년의 노일전쟁에 대해 그 해 꾸랑은 「정치학 연보」에 “조선과 외세”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충돌의 기원이 되는 영속적인 地政學的 상황을 상기시키고 당시 유럽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여기서 보여진 세심함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사건의 전개를 줄곧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1904년 한국에 관한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얼핏 보면 정반대로 당시 정세와 無關한 듯 하다. “조선의 일본기지, 15세기 이래의 釜山”이라는 제목은 그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겸허하다. 실제로 이것은 한국측 관점에서 쓰여진 15세기부터 19세기 말에 걸친 韓日 관계사이다. 豊臣秀吉 침략시기는 따로 특별히 다룰만한 주제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꾸랑이 사용한 한국측 자료는 1차 사료이다. 1471년 이전 시기는 申叔舟가 지은 「海東諸國記」를, 이후 시기는 「同文考略」을[35] 참고하였으며 양국 간의 통상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35] 1851년에 출판되었으며, 1636년 이래 조선과 同文 즉 漢文을 사용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를 범주별로 선정하여 엮은 것이다. 이것은 1788년 이후의 외교문서를 84권으로 정리한 『同文彙考』를 15권

「通文館志」에서 인용되었다. 이같은 고증을 거친 그의 논문은 보다 유명한 학술지에 揭載될만한 우수한 연구 논문이었다. 同 주제에 관하여 꾸랑의 이 논문에 비길만한 연구가 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서구세계에서 발표된 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전혀 인용되지 않은 채 망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을 쓸 때 꾸랑의 저의는 저자 자신 차후 강조하고 있듯이 일본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소위 "역사적 권리"의 사실 무근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36] 이 논문 발표로 모리스 꾸랑은 불행한 시간을 맞은 한국을 위해 발언한 소수의 외국인들 축에 속하게 되었다.

1903년부터 꾸랑은 「정치학 연보」에 "극동의 정치생활"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1908년 중단되었다가 同年 「동서양의 정치생활」에 재개되어 1914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이같은 연대기적 기사는 일시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극히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쓴 시사기사이니 더욱 더 그러하다. 꾸랑의 정보원은 그 자신 寄稿者인 「Bulletin du Comité de l'Asie française」와 「North China Herald」, 「Hong Kong Press」, 「Japan Mail」등의 아시아 관계 영자 신문이었다. 조선에 관한 것은 閔주교가 정규적으로 보내주는 「Korea Repository」, 「Korea Review」, 「Korea Press」에 전적으로

으로 간추린 개요라 하였다. 1881년까지 보유권이 첨가되었다.

[36] *Annales des sciences politiques*, 1904, p.827.

의거하였다.

오늘날 꾸랑의 연대기가 불러 일으키는 관심은 그것이 보고하고 있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과 해설에 있다. 그의 연대기가 실린 두 잡지를 비롯하여 당시 아시아 관계 모든 언론이 백인의 우월성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해 꾸랑의 기사는 그가 취급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존경이 엿보여 다른 신문기사와 완전히 구별된다. 중국에 대하여 그는 중국정부의 취약성을 개탄해 하면서도 그의 논문집 「중국의 풍속과 제도, 인간과 사건」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중국의 전통적 제도의 경고성을 재삼 강조하였다. 그는 극동 諸國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데서 생겨날 위험을 서구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그의 연대기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시 점진적으로 독립을 상실해가고 있는 조선에 관해 기울인 관심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불란서의 아시아 식민지 정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웃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유럽의 諸國과 더 나아가서는 불란서를 향해 조선이 겪는 불행한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독립은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자의 것”이라고 거듭 되풀이하였다.

시사문제를 담당하면서도 고증학적 연구를 방치하지 않았다. 그가 조선에 대해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上記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04년 10월 5일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꾸랑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중국어 문법서인데 이것은 1906년에 완성되나 1914년까지 인쇄소 창고에 파묻혀 있게

되었다.[37] 아직도 간혹 참고할만한 책이다. 둘째, “중국 음악사에 대한 대작”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그의 서신 속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있는 東西洋關係史에 대한 그의 연구를 여기서 살펴 보기로 하자.

1906년 10월 15일 민주교에게 쓴 바와 같이 꾸랑은 “유럽과 극동관계”에 대한 대단위 작업을 시작하였다. 민주교가 유럽에 와 있는 동안 서신 왕래가 중단되었다가 2년 후 1908년 11월 21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문법서 인쇄件은 진척되고 있고 국립도서관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술문제는 만만치가 않군요. 연구가 진정되는데 비례하여 주제가 광범위해지고 분량도 불어나 현재 저는 「19세기 유럽과 극동관계사」를 3권 이내로 압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필리핀만 해도 벌써 47페이지나 차지하는군요.” 다음해 1909년 4월 12일 편지에서 “저도 역시 공부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재능이고 보람이니까요. 이번 겨울 동안 서양 극동관계사 중 1850년경 까지의 시베리아와 몽고에 관한 章을 마무리했읍니다. 필리핀 章은 이미 지난해 끝을 맺었읍니다. 시간이 되면 화란 식민지도 포함시키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의 것은 주변 문제라 할 수 있겠고 핵심을 이루는 불란서 식민지가 아직 남아 있읍니다. 이 일을 성공리에 마치려면 수년 걸릴 듯 합니다.” 7월 16일 “드디어 극동과 중앙아시아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37] Maurice Courant, *La langue chinoise parlée, Grammaire du kan-hwa septentrional*, Paris, 1914, XXVII-384 p.

활동에 대한 두번째 章을 끝냈읍니다. 그러나 저의 설명과 전개에 여러 헛점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3장은 화란의 극동제국 편으로써 곧 시작하려 합니다." 16개월 후 1910년 8월 13일 꾸랑은 러시아의 극동진출편을 별도로 인쇄할 찰나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식민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이르기까지」인데[38] 정작 출판이 되는 것은 1920년, 백계 러시아 세력의 소련에 대한 저항으로 인하여 북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해의 일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지역에 대한 서양어로 된 총괄적인 일람표가 존재치 않던 실정이었다. 저자는 터어키 몽고족의 고유명사나 그들 영토의 지리에 생소한 독자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인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난 東 • 西 접촉의 특이성을 강조하였다.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 책을 대신할만한 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다. 1909년에 탈고, 1920년에 출판될 이 책은 꾸랑의 주요출판물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방대한 19세기 유럽과 극동 관계사는 제1부만 완성된 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같은 시기 꾸랑은 중국음악에 관한 논문에 착수하고 있었다. 1904년 10월 5일 편지에서 처음으로 민주교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으며 1913년 리용대학교 문과대학에 국가박사 논문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전혀 별개의 두 주제에

---

[38] Maurice Courant, *La Sibérie, colonie russe, jusqu'à la construction du Transsibérien*, Paris, F. Alcan, 1920, 95 p.

대한 연구를 병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동양학자로서의 교양의 폭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논문은 학장과 총장의 서명으로 보아 1908년에 끝난 것 같다. "「중국음악」 인쇄가 진행중" 이라고 1910년 8월 13일 민주교에게 썼으며 1912년 드라그라브(Delagrave)社의 「음악백과사전」의 일부로 출판되었다.[39]

「중국음악小史, 부록 : 조선음악」은 여기서 재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꾸랑이 서문에서 밝힌 바 이 작업의 유래를 옮겨보면, "고전적이고 우아한 악기 琴은 원래 가브리엘 드베리아 선생의 관심을 끌었던 악기이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필자 또한 중국에 머무는 동안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琴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 중국의 음악이론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불란서에 돌아온 후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중 국립도서관에서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자가

---

[39] Maurice Courant, *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des Chinois, avec un appendice relatif à la musique coréenne*는 1912년 別冊으로 출판되었다가 다음해 음악백과서전의 제1권에 "중국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 *L'Encyclopédie de la musique et Dictionnaire du Conservatoire*, dir. Par Albert Lavignac, Paris, Delagrave, 1913~1931, 11 vols., première partie Histoire de la musique, 1913~1914, 3 vols. (illustr. et notat. Music.), 중국과 한국의 음악에 관한 이 연구 이후 꾸랑은 일본 음악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 "Japon, notice historique" 同上 vol. 1, pp.242~256. 한국 음악에 대해 꾸랑이 참고로 한 자료는 『三國史記』, 『高麗史』, 『文獻備考』, 『進饌儀軌』, 『五禮儀』이며 그의 연구 대상은 雅樂에 국한되었다.

독자제위께 제출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 이론과 정통 고전음악의 역사이다. 비록 부족하기 그지없는 「小史」이긴 하나 현재까지 간과되어 왔던 사실과 원칙을 정립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작업이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같이 확정된 영역 내에서 언젠가 젊은 중국 음악학도들에 의해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 귀절이 의도하는 바는 그 자신 한국에 대한 전문적 연구에서 이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즉 광대한 미개척 분야를 선정, 관련된 주요 참고자료를 세밀히 조사한 후, 그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일람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국가 박사 논문발표회는 1913년 2월 1일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장 에두아르 샤반느는

"자신 또한 중국에 체류했었음을 상기시킨 후, 통역관이라는 多忙한 직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같이 풍부한 유럽 비공개 자료를 수확하여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두 논문을 이루어 낸 꾸랑을 치하하고, 특히 음악사 논문은 이 방면 현존하는 연구서 중 가장 깊이 파고든 것이다." "자료의 풍부함과 확실성으로 보아 불란서 중국학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 하겠다" 라고 평가하였다.

그 당시 국가 박사 학위 규정에는 "副" 논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꾸랑의 "副" 논문의 제목은 "17, 18세기의 중앙아시아"이며, "서몽고 제국? 아니면

만주제국?"이라고 의문형식으로 붙여진 副題는 저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두 민족 간의 투쟁이 낳은 비확실성을 의미하고 있다.[40] 오늘날 흔히 오이라트(Oirats)라 불리우는 서몽고인들은 북경 부근의 동몽고 영토를 자주 습격하여 이 지역을 통치하던 淸황제의 눈에는 무시 못할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었다. 꾸랑은 물밀듯이 이웃 영토로 쳐들어가는 기마단을 묘사하고 이어서 이들을 격파하기 위해 1696년부터 1759년 사이 수 차례 구성된 淸의 원정대와 그 결과 발하시 (Balkash)湖에 이르기까지의 중앙아시아가 淸에 의해 정복되는 과정을 연결시켰다. 당시 이미 탈고된 「러시아 식민지 시베리아」에도 같은 시기 같은 민족과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이들의 러시아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논문은 同민족들의 북경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국측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41]

식민지 예비학교를 주관하고 리용 대학에서의 꾸랑의 강의를 후원하던 리용 상업회의소는 꾸랑의 논문 발표 후 리용 대학에 중국어 교수직 창설을 위한

---

[40] Maurice Courant, "L'Asie central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empire kalmouk ou empire mantchou?", *Annales de l'université de Lyon*, nouvelle série, II. Droit et lettres, fasc. 26, Lyon(A. Rey) et Paris(A. Picard), 1912, 151 p.

[41] 중극측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874년 王先謙에 의해 편집된 문서집을 들 수 있는데 北京 궁정의 문 이름을 따라 『東華錄』이라 命名하였다. 중국이나 서양의 참고도서 이외에도 러시아에서 간행된 저서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는 논문의 저자가 이들 저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특별기금을 제공해 왔다. 대학 당국과 문교성은 이를 수락, 1913년 6월 20일 법령에 의해 중국어 교수직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서 11월 1일 꾸랑은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때 그는 문과대학 강의에 중국과 극동의 역사에 대한 공개 강좌를 첨가하기로 작정하였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48세에 국가 박사 학위를 받고 정교수로 임명되었으나 1913년은 꾸랑으로서는 吉年이었으며 원대한 계획을 지니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더 이상 대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의 중국어 문법서가 1914년에 「러시아 식민지 시베리아」가 1920년 출판될 것이나, 前者는 1906년, 후자는 1910년에 탈고된 것이다. 「중국음악사」원고는 1908년 이미 인쇄소로 보내졌으며, 1912년 편집된 그의 副논문도 1911년에 완료되었음에 틀림없다. 국립도서관의「중국도서목록」편집이 중단된 것은 같은 시기로서 1912년 그 마지막 冊이 출판되었다.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유럽과 극동관계사에 대한 언급이 중지되었다.

이와 같이 꾸랑은 수년간 계획해 온,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포기한 것이다. 1897년에 시작된 국립도서관 목록 작성을 중단한 이유도 알 수가 없다. 그 후 1932, 1933년에 이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보아 그의 방법이 뒤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꾸랑이 더 이상 미래를 계획치 않게 만든

커다란 계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우선 1914~1918년 第一次大戰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미 그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침체상태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더욱이 그는 징집되지도 않았다. 단절의 원인은 그보다 이전 1911년경 찾아봐야 한다.

1915년 9월 2일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오른손이 불구가 된 이래 행동이 극히 제한된다” 라고 개탄하고 있다. 사실 그 얼마 전부터 그의 편지가 뜸해지고 간략해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필적이 종전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꾸랑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오른팔을 항상 상의 아래 감추고 결코 사용치 않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조카의 말에 의하면 이는 사고 때문이라 한다. 어느 날 서가의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와 함께 쓰러져 그 와중에 오른팔이 유리창을 관통, 손목 깊숙이 유리조각이 박혔다. 이 사고 후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사고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나, 꾸랑의 서류 속에서 발견된 1910~1911년도 강의안을 보면 대략 그 일자를 짐작해 낼 수 있다. 상업회의소에서의 중국 문화 강의 내용이 매주 두어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학기초 보통 필적으로 시작되었다가 12월 15일 이후 중단, 1911년 3월 2일에야 극히 불규칙하고 서투른 왼손잡이 글씨로 재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고는 1910년 12월 15일과 그 다음 강의 예정일인 22일 사이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민주교에게 보낸 마지막 장문의 편지는 과연 12월 14일자의 것이다.

1910년에 일어난 이 사고는 1913년 그의 논문 「17, 18세기의 중앙아시아」

발표시 그가 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준다. 어느 논문 심사위원은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로서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수많은 낯선 인명과 용어가 넘쳐나는 일련의 사건의 홍수 속에 말려들게 되어 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라고 불평하고 있다. 사실 그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결점인데, 당시까지 항상 세밀하게 검토된 내용만을 출판해 온 꾸랑으로서는 그답지 않은 일이다. 이 역시 그에게 집필작업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를 보여준다.

이리하여 꾸랑은 45세에 이르러 왼손사용법을 익혀야만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다작을 하던 그가 그의 동년배들은 바야흐로 노련한 저작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에 이르러 날개가 꺾인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관한 이 논문을 제외하고는 1910년 12월 이전에 이미 완성된 원고 이외에 달리 더 이상 출판하지 않았으며, 이 논문에 대해서도 사고 이전의 서신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고 후 2년반 후에 행해진 논문 발표는 그의 경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과거의 인정과 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흐름이 완만해진 4년간도 새로운 작업을 기획하는 기회로 이용되지 않았다. 꾸랑은 두세 명으로 줄어든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계속하는데 만족하였고 리용대학 총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호젓한” 삶을 지속하였다. 에뀔리 자택에서 종래 직접 담당해 온 남은 두 아들의 교육도 포기하였다. 1917년에는 폐렴까지 겹쳐 오래 고생하였다. 1918년 봄에 이르러서야

기력을 되찾고 오랜 동면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를 재기시킨 것은 일본이었다. 1918년 4월 17일 그는 꼴랭에게 불란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진 지식이 빈약함을 개탄하면서, “드로니 교수가 일본어 강좌를 완전 독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휴전이 조인되고 평화를 회복한 1918~1919년도 꾸랑은 문과대학에서 극동사 공개강의를 개설하고 일본의 근대화라는 주제로 일련의 강의를 전개하였다.

이 나라는 이즈음 당국의 관심 또한 재기시켰다. 1919년 문교성은 동경에 “불란서 대학”을 세우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국의 지식인 대학인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임무를 띤 대학사절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리학자이자 이미 1902년부터 대학 행정을 맡아왔고 1905년 이래 리용 아카데미(文教區城)를 통솔하고 있던 경험자인 뽈 주뱅(Paul joubin)이 선정되어 2월 25일 출발하기로 예정되었다. 17일 그는 꾸랑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부간 결정을 내릴 시간이 거의 없었던 셈이나 꾸랑은 망설이지 않았다. 사절 파견의 목적은 자신의 관심사와 상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극동 지역을 다시 찾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더욱이 주변으로부터도 권유를 받은 그는 이를 즉시 수락하였다.

그러나 25일 배를 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던 탓으로 출발은 3월 23일로 연기되었다. 꾸랑은 아시아에서 할 일을 계획하며 희망에 넘쳤으며, 그의 기대의 초점은 여전히 한국이었다. 연기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문예학술원에 “그가

예전에 착수하였던 조선남부지방 탐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월 1일 민주교에게 보낸 편지 "우선 저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전념해야겠지요. 그러므로 약 6주간 일본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908년 주교님께서 저를 찾아 주신데 대한 답례도 하고 답사도 할 겸 조선으로 건너 갈 예정입니다. 그런 의도로 문예학술원의 일을 맡았읍니다. 특히 가고 싶은 곳은 慶州 지방과 金海 지방이며 海印寺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平壤, 龍岡, 江西도 보았으면 합니다. 비서 겸 사진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힘써 보겠읍니다."

꾸랑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마르세이유에서이다. 왜냐하면 장기 파업으로 출발이 7주나 연기되어 그와 주뱅 부부는 5월 12일에야 마르세이유항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했던 이 지연 사태로 인하여 그들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6월 29일 동경에 도착해보니, 3월에 시작되는 일본의 제1학기가 이미 끝나 대학은 문을 닫고 교수진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장마철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음)

(옮긴이 : 全壽蓮)